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와 잠재평균 분석*

주영주(朱玲珠)**

김동심(金東心)***

이광희(李光熙)****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학교유형상 목적이 다른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잠재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A자율고교생과 B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자율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가 특성화고교생에 비해 높았으며, 효과크기는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교교육의 성과인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45331)

**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에는 2008년 2월 국가발전전략체계에 의해 시작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결과로 일반고등학교와 더불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IT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존재한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농촌 및 낙후도시의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고 150개, 기존의 사립고에서 자율성을 더욱 강화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의 신설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는 노력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이 너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어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4개 유형으로 단순화되었다. 기존의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농업·공업·수산·해양), 전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되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4계열을 통칭하게 되었다.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율고등학교로 통합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 유형별 고등학교는 학교별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나,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비교연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학업생활분석에 따르면 일반고등학생(이하 일반고교생)에 비하여 특수목적고등학생(이하 특수목적고교생)이나 특성화고등학생(이하 특성화고교생)의 학교소속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상근, 2009). 고교유형별 학생집단의 특성연구(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11)에서는 특수목적고교생, 자율고등학생(이하 자율고교생), 일반고교생, 특성화고교생 순으로 부모 중 아버지의 학력과 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르면 서울시 고등학교에서 상위15개교 중 6개교가 자율고등학교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1개교만 순위에 들었다. 이런 학생의 교육 자율권의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자율고교와 직업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성화고교간에는 교육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고등학생의 교육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성가에 미치는 변인별 차이를 밝혀 유형별로 학교프로그램을 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변인은 Bandura(1977)의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상호결정론은 개인, 환경, 행동의 세 변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행동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환경변인으로는 학교소속감과 부모지원, 행동변인으로는 교육성과인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선정하였다.

개인변인으로 선정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학습상황에서 동기와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97).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목표설정과 학습전략 사용, 도전적인 과제선택, 과제수행에 보이는 인내심, 과제지속성,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유지원, 2012).

환경변인으로는 학교의 유형별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소속감과 부모지원을 선정하였다. 학교소속감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심리적 적응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발달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신종호, 연은모, 이유헌, 정은경, 김명섭, 2011). 또한 부모지원은 역시 학습자의 학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Fan & Chen, 2001). 즉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환경조성, 새로운 학습경험 제공, 학습과제 도움주기, 학교행사 참여 등과 같은 지원행동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문은식, 김충희, 2003).

행동변인으로는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선정하였다. 학교만족도는 학습자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만족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다(Huebner, Ash & Laughlin, 2001).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외국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학교만족도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 & Huebner, 2005). 또한 학업성취도는 학교만족도와 더불어서 교육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대학입학과 관련성이 높아 학업성취도는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와 학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도 학업성취도는 취업과 연결되는 지표로 그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형인 일반고교생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자율고교생에 대한 연구는 학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학입학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는 자율고등학교와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80단위까지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문교과를 통해 직업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운영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각 학교별 운영상의 차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성과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자율고등학교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가 적다(박용원, 조영하,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차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간의 변인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만족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학교는 그들의 활동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만족도는 그들 생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이 깊다. 학교만족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학습환경같은 학습자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학습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와 학교에 대한 만족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 2011).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uebner(1994)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중에서 학교만족도와 관계된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Bandura,1986).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전략 사용에 대해 평가하는 대표적 도구인 Corno(1983)의 MSQR(Motivation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중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학업에 대해 불안을 덜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다(김아영, 박인영, 2001).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ilverhom & Gekoski, 1995; 김미숙,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며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여주와 홍성례(2012)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697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e Witz와 Walsh(2002)도 미국의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교만족도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학교소속감이란 학생들이 학교 혹은 교실에서 맺어지는 관계 또는 사회 환경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Goodenow, 1992). 이를 측정하기 위해 Goodenow(1993)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중에서 학교만족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런 학교소속감은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Rice & Ashby, 1996)고 했다.

학교소속감과 학교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서울 소재 예술고등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학교소속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하였다(신중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 2011). 주영주, 이정원, 김동심(2012)의 연구에서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교소속감은 MSLSS(Huebner, 1994)의 도구를 사용한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26개교 고등학생 368명을 대상으로 한 Henry(2007)의 연구에서도 학교소속감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 출석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학교만족도를 예측하였다.

부모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긍정적 조력을 제공하고, 투자하는 것이다(Chen & Uttal, 1988; Grolnick & Slowiaczek, 1994). 이를 측정하기 위해 Bandura(1977)의 부모지원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학업적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학습동기가 높고, 학업과제에 더욱 몰입하며,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neider & Lee, 1990).

부모지원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식과 이현철은 2005년부터 시행한 한국교육중단연구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6,568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부모지원, 학급풍토 및 학교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2010). 그 결과 부모지원은 학교만족도에 자아개념과 학급풍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노르웨이 13세 1,736명과 15세 1,622명의 대상으로 인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결과, Wold, Aarø, & Smith(1993)과 Deci, Ryan(2007)의 도구를 참고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한 부모지원은 MSLSS(Huebner & Gilman, 2002)도구를 활용한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만족도는 인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anielsen, Samdal, Hetland, & Wold,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을 선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학업성취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학업성취도는 학습자의 학교적응 및 미래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

다.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은 학습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업에 실패한 학생의 경우에는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Cheung, 1997)으로 밝혀지고 있어,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높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정적관계로 나타난다. 학업적 수행능력에 있어서 학습자가 자신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특성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학업수행 및 성취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 주희진(201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489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학업성취도에 자기효능감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국외연구에서도 255명의 아랍에미레이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Afari, Ward & Khine, 2012).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eonya(2004)는 미국에서 61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교사와 주변 동료들에 의해서 형성된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지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 졌다. 2003년부터 5년간 실시되었던 한국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정병삼(2012)은 초등학생 4학년 2,44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은 초등학생에게 학업성취도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인재와 오수연(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청소년 패널데이터의 중학교 2학년 3,697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지원이 교사 애착이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Tocci,과 Engelhard(1991)은 13세 미국 학생 3,846명과 태국 학생 3,528명을 대상으로 부모지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태국 학생 모두 부모지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을 선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집단 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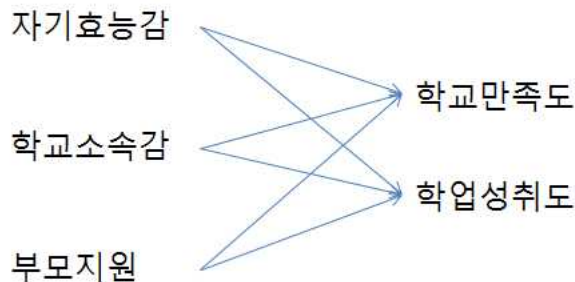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운영체제는 법적으로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일반고등학교와 특수유형의 고등학교를 차이를 확인에만 그치고, 그 차이가 의미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자

율고와 특성화고를 비교하는 연구는 없었다. 하민수와 그의 동료들은 387명의 특성화고교생과 일반고교생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일반고교생이 특성화고교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민수, 김미영, 박경화, 이준기, 2012). 또한, 688명의 마이스터고등학생(이하 마이스터고생), 특성화고교생, 일반고교생의 학교소속감과 학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마이스터고생의 학교소속감과 학교만족도가 특성화고교생과 일반고교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배상훈, 김환식, 김효선, 2012). 이는 타 고등학교에 비하여 마이스터고생이 자신의 특기·적성과 장래 희망직업을 근거로 진학할 고교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되었다. 부모지원에 있어서도 마이스터고생과 특수목적고교생 250명의 개인배경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마이스터고생에 비해 특수목적고교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것의 영향으로 부모와의 대화정도나 가족만족도가 특수목적고교생이 마이스터고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김도진, 2011). 박소영(2009)은 57개교 일반고교생 2,421명과 13개교 특수목적고교생 850명의 학업성취를 비교해 보았다. 일반고교생과 특수목적고교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 수학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특수목적고교생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그림 II-1]참고).

1.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간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II-1] 가설적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A자율고등학교와 의정부내에 위치한 B특성화고등학교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학교교육환경에 적응이 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 2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A자율고등학교는 2학년 전부인 10개반 27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자율고등학교는 창의적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자 및 불성실한 응답자 53명을 연구에서 제외하여 응답률은 80.72%였다. 총 22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율고등학교와 연구함에 있어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업성취도에 있어 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업계열 B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고교에서는 2학년 전부인 8개반 25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B특성화고등학교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속의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관광비즈니스과, 국제비즈니스과, 복지비즈니스과로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자 및 불성실한 응답자 34명을 제외한 응답률은 86.71%였다. 총 22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절차

각 학교별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 요청 후, 허락을 받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송하였다. 각 학교에서는 학기말,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담임교사배포하였고, 담임교사는 조·중례시간을 통해 설문지에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중에서 각변인에 대해 연구에 활용한다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아 설문지 데이터화 작업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학생의 전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합쳐진 100점 만점의 학기말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학교만족도는 Huebner(1994)의 MSL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중에서 학교만족도와 관련된 문항 8개(예: 나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생들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도구이다

(Sawatzky, 200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90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958.999($p=.00$)로 나타났고,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내적 일치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기존연구는 .91 본 연구는 .909이다.

자기효능감은 Corno(1983)의 MSLQ(Motivation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은 동기적 신념, 내적 가치, 평가 불안,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 6개(예: 나는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를 사용하였다. MSQR은 학습전략의 사용에 대해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Jacobson & Harris, 2008).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919,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648.408($p=.00$)로 나타났고,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는 .88 본 연구는 .920이다.

학교소속감은 Goodenow(1993)의 PSSM(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18문항(예: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존중해 주는 편이다)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로 연구대상의 학년과 관계없이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Hagborg, 1998).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9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943.214($p=.00$)로 나타났으며 3요인으로 나타났다. 3요인을 특성에 따라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로 명명하였다. Cronbach's α 는 기존 연구는 .80 본 연구는 .744이다.

부모지원은 Bandura(1977)의 부모지원 척도 6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학교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독려해 주신다)중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문항(부모님은 내가 학교숙제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0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014.377($p=.00$)로 나타났고,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Cronbach's α 는 기존연구는 .76 본 연구는 .848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FA 결과 잠재변인 중 학교소속감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는 단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단요인은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중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묶음지표(item parcel)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이 많은 경우, 자유모수치가 증가하여 모형 추정 시 나타나는 문제 발생 확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임의로 묶은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Kishton & Widamn, 1994). 묶음지표를 활용하면 각 잠재변인을 측정해주는 측정변인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많

은 문항들을 사용할 때보다 구조방정식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Sass & Smith, 2006).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이후에는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순서로 가정을 검증하였다.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은 그 집단과 참조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된다. 따라서 추정된 회귀계수(잠재평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두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잠재평균분석 과정에서는 추정된 잠재평균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91에서 최고 61.23,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43에서 최고 13.87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2에서 최대 .38, 첨도는 절대값 최소 .00에서 최고 1.36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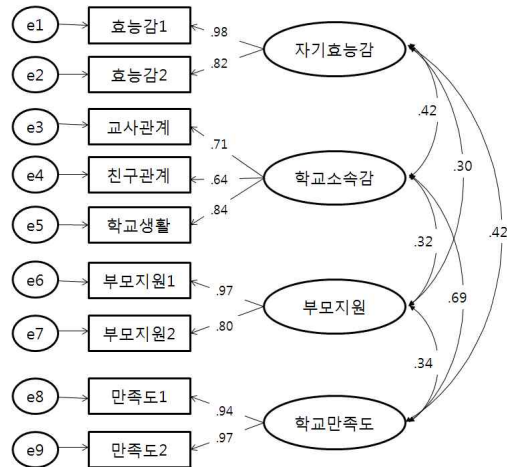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44)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자기효능감 1	-								
자기효능감 2	.79*	-							
교사관계	.33*	.26*	-						
친구관계	.27*	.22*	.46*	-					
학교생활	.31*	.27*	.58*	.54*	-				
부모지원 1	.28*	.21*	.20*	.25*	.25*	-			
부모지원 2	.26*	.19*	.18*	.22*	.17*	.77*	-		
학교만족도 1	.36*	.32*	.46*	.37*	.55*	.32*	.23*	-	
학교만족도 2	.39*	.34*	.47*	.39*	.57*	.31*	.23*	.90*	-
학업성취도	.36*	.28*	.16*	.10*	.17*	.18*	.17*	.16*	.1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자기효능감 1	3.14	.74	-.11	.60	1.00	5.00
자기효능감 2	2.98	.81	.10	.17	1.00	5.00
교사관계	3.00	.55	-.16	1.19	1.00	5.00
친구관계	3.20	.47	.21	1.36	1.50	5.00
학교생활	3.03	.43	.18	1.19	1.60	4.80
부모지원 1	3.39	.79	-.15	.34	1.00	5.00
부모지원 2	3.70	.82	-.38	-.00	1.00	5.00
학교만족도 1	2.91	.80	-.27	.15	1.00	5.00
학교만족도 2	3.00	.78	-.24	.30	1.00	5.00
학업성취도	61.23	13.87	-.02	-.16	25.30	94.80

*p < .05



[그림 IV-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1.1.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형추정가능성 확인 절차(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표 IV-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000~.049)를 비롯하여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64~.98에 걸쳐 있어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Hair, Anderson, Tathrn, & Black, 1995),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잠재변수들간의 상관도 .8이하로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어 측정모형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IV-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4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6.31	21	.996	.998	.024 (.000 ~ .049)
기준값			>.90	>.90	<.08

2.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표 3>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96, CFI=.998, RMSEA=.018(.00~.043)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3> 초기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4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초기 구조모형	31.07	27	.996	.998	.018 (.000 ~ .043)
기준			>.90	>.90	<.08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3(t = 3.018, p < .05)$, 학교소속감이 학교만족도에 영향력은 $\beta = .59(t = 9.560, p < .05)$, 부모지원이 학교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beta = .10(t = 2.471, p < .05)$ 이었다.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32(t = 6.270, p < .05)$, 학교소속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3(t = .676, p > .05)$, 부모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7(t = 1.562, p > .0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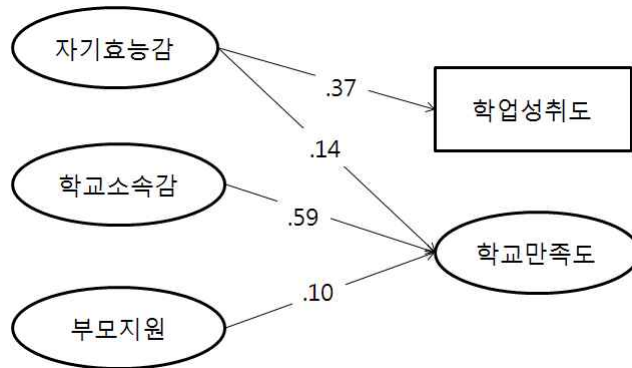
따라서, 초기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인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 학업성취도를 삭제하여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이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초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D = 3.65, $p > .05$ 로서 적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초기 구조모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TLI = .995, CFI = .998, RMSEA = .021(.000 ~ .044)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 IV-2]와 같다.

<표 IV-4>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4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수정모형	34.72	29	.995	.998	.021 (.000 ~ .044)
초기구조모형	31.07	27	.996	.998	.018 (.000 ~ .043)
기준			>.90	>.90	<.08



[그림 IV-2]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3. 잠재평균비교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평균값을 직접 비교하는 ANOVA에 비해 각 변인간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Hong, Malik, & Black, 1992),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 검증이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하는 것이다. 잠재변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자기효능감, 학교 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각 학교유형별 두 집단에서 비교하였다.

<표 IV-5>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n=4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특성화고	25.71	60	.993	.996	.032 (.00-.068)
자율고	13.16	47	1.01	1.00	.000 (.00-.024)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특성화고등학교: CMIN = 25.714 , TLI = .993, CFI = .996, RMSEA = .032, 자율형고등학교: CMIN = 13.163 , TLI =

1.011, CFI = 1.00, RMSEA = .00).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2)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모형(모형1)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즉 측정동일성모형은 형태동일성모형이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χ^2 검증을 통해 측정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다. 그 결과, χ^2 차이값은 35.404이고 자유도의 차이값은 5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간의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으므로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모형(모형2)과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모형(모형3)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 차이값은 107.998이고 자유도의 차이값은 9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절편동일성이 검증됨에 따라 관찰된 평균의 차이는 잠재변수에 대한 집단간 실제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IV-6>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n=4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	38.877	42	1.002	1.000	.000 (.000-.029)
모형2: 측정동일성	74.281	47	.982	.998	.036 (.019 ~ .051)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182.279	56	.931	.946	.071 (.060 ~ .083)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208.873	60	.924	.936	.075 (.0064 -.083)
기준			>.90	>.90	<.08

2)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간 잠재평균 비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만족되어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학교 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상수1을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되는 것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참조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Hancock, 1997).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교생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자율고교생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이렇게 산출된 잠재변수의 평균차이가 어느 정도 큰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ohen(1998)의 효과크기(d)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표준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동일성 검증(모형4)을 하여야 한다. 요인분산동일성은 절편동일성모형과 각 요인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간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χ^2 을 검증한 결과, CMIND = 26.594, $p > .05$ 로서 적합도에 있어서 연구모형3과 연구모형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산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효과크기값은 공통 잠재평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값이 .2이하면 작은 것으로, .5면 중간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지원과 학교소속감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으며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가 자율고교생이 특성화고교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크기는 자기효능감은 큰 효과크기를, 학교만족도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간 잠재평균차이분석 (n=444)

잠재변인	특성화고		자율고		효과크기(d)	전체평균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자기효능감	0	2.77	.586*	3.37	1.11	3.06
학교소속감	0	3.06	-.017	3.19	1.15	3.12
부모지원	0	3.52	.013	3.57	.02	3.54
학교만족도	0	2.89	.152*	3.02	.26	2.95

* $p < .05$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자율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이들 잠재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고등학생의 개인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환경변인인 학교소속감과 부모지원은 행동변인이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행동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별로 학교 내의 다양한 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높은 학교만족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운영이 자유로운 자율고에서는 학교설립목적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업을 들으며 논문을 작성하는 R&E(Research & Education)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위주의 특성화고교에서는 직업교육과 관계된 직장예비체험훈련, 직업 기초소양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변인인 자기효능감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주희진, 2011; Ernest, Graeme & Myint, 2012). 그러나 환경변인인 학교소속감과 부모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하지 않았다. 김선숙, 고미선(2007)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고등학생 진학이후에는 가족, 학교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사라지고 개인관련 변인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현주, 이병훈(200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되면 가족관련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학교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의 개인변인이 환경변인에 비해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변인보다 개인변인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김아영(2004)은 학생들에게 성취경험 제공하기, 대리적 성취경험제공하기, 교사의 언어적 설득을 통한 신뢰심어주기 및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접하였을 때 불안과 초조함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기술훈련시킴과 같은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학교는 위에 제시한 방법을 활용한 숙달목표향상프로그램이나 성공지능향상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 학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자율고교생의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가 특성화고교생에 비해 높았으며 효과크기는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유형별로 자기효능감, 학교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교생에 비해 자율고교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율고등학교의 설립 배경이나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성현 외(2010)가 학교만족도에 대해 학교유형별로 살펴본 연구 결과, 자율형 사립고(평균 2.86), 자율형 공립고(평균 .297), 일반고(평균 3.01) 순으로 학교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런 학교만족도의 차이는 학업중단율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 자율고교생이 1.26%, 특성화고교생은 1.26%가 학업을 중단중에 있다(교육부, 2013). 또한, 자율고교생의 경우 학교의 교육특성을 살펴보고 본인이 선

택하여서 진학한 학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시간이나 현장에 있는 선배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특성화고교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각각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구조모형속에서 통합적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자율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간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프로그램 설계시 학교가 고려해야 할 변인들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학교에는 4개 유형의 학교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2개 유형인 자율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유형의 고등학생에게 일반화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가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갖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성과로는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학교소속감, 부모지원을 선정하였다. 보다 다양한 영향변인과 성과변인을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높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이 정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종단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3).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세종: 교육부.
- 김도진(201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개인 배경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2(2), 55-80.
- 김선숙, 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아영(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8.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주, 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 인구학회**, 30(1), 125-148.
- 문은식, 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17(2), 271-288.
- 박소영(2009). 일반계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분석. **교육행정학회**, 27(4), 225-245.
- 박용원, 조영하(2013). 자율형고등학교와 혁신고등학교의 조직풍토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 비교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3), 107-127.
-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2012).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55-180.
- 서울시 교육정보원(2011). **고교유형별 학생집단의 특성 연구**. 제1회 서울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발표. 서울: 서울시 교육정보원.
- 신중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 유지원(2012). 이러닝 수업에서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치, 자기효능감, 수업 성취목표구조, 학업정서 간의 구조적 관계. **컴퓨터교육학회**, 15(4), 61-77.
- 주영주, 이정원, 김동심(2012). 자율형사립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관련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71-91.
- 주희진(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인과관계.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11(2), 237-259.

- 정병상(2012). 부모교사친구 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중
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차성현, 민병철, 김성식, 김준엽, 박소영, 변종석, 강경완(2010).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
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 자율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근(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인재, 오수연(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미래청
소년학회지**, 7(3). 95-113.
- 하민수, 김미영, 박경화, 이준기(2012). 일반고 학생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연과학고 학생들
의 과학동기 수준 및 구조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5), 866-878.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fari, E., Ward, G., & Khine, M. S. (2012). Global self-esteem and self-efficacy correlates:
Rel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among Emirati student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5(2), 49.
- Age Diseth, Anne G. Danielsen & Oddrun Samdal. (2012). A path analysis of basic need
suppor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s,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2(3), 335-35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view*.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hen, C., & Uttal, D. H. (1988). Cultural values,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uman Development*, 31, 351-358.
-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20.
- Deci, E., & Ryan, R. (2007). *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Rochester, NY: Deci SDT
Publications. Retrieved October 22, 2007, from

http://www.psych.rochester.edu/SDT/measures/auton_learn.html

- De Witz, WALSH. W. B. (2002)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3), 315-326.
- Fan, X.,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22.
- Goodenow, C. (1992). Strengthening the links between educational psychology and the study of social contexts. *Educational Psychology*, 27(2), 177-196.
- Goodenow, C. (1993). The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among adolescents: Scale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rrelates. *Psychology in the School*, 30, 79-90.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agborg, W. J. (1998). An investigation of a brief measure of school membership. *Adolescence*, 33(130), 461.
- Hancock, G. R. (199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of hypothesis testing of latent variable mean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91-105.
- Henry P.H. Chow. (2007). Sense of belong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ngkong adolescent Immigrants in Canad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3), 511-520.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
- Huebner, E. S., Ash, C., & Laughlin, J. E. (2001). Life experiences, locus of control, and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2), 167-183.
- Huebner, E. S., & Gilman, R. (2002). An introduction to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1-3), 115-122.
- Jacobson, R. R., & Harris, S. M. (2008). Does the type of campus influence self-regulated learning as measured by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Education*, 128(3), 412-431.
- Keonya. C (2004) Exploring school belong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urriculum and Teaching Dialogue*, 6(2), 131-143.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3), 757- 765.

- Park, N.,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 444-56.
- Rice, K. G., & Mirzadet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Sass, D. A., & Smith, P. L. (2006). The effects of parceling unidimensional scales on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566-586.
- Schneider, B., & Lee, Y. (1990x). A model for academic success: The school and home environment of East Asian student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1*, 358-377.
- Tocci, C. M., & Engelhard Jr, G. (1991). Achievement, parental support, and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4*(5), 280-286.
- Wold, B., Aarø, L. E., & Smith, C. (1993).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A WHO cross-national study—Research protocol for the 1993-94 survey*. Bergen, Norway: University of Bergen.

* 논문접수 2014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9월 4일 / 게재승인 2014년 9월 22일

* 주영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미국 Boston University 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교수매체의 제작과 활용 등이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교육자원경영, 교육정보화 등이다.

* E-mail: youngju@ewha.ac.k

* 김동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교육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에 있다. 연구관심분야는 교육자원경영, 교육정보화, 뉴미디어기반 교육 등이다.

* E-mail: schwimmer@naver.com

* 이광희: 성심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교육학 및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수원과학대학교 아동교육과교수로 재직중이며, 연구 관심분야는 교육자원경영, 교육행정 등이다.

* E-mail: khlee@ssc.ac.kr

Abstract

Difference Analysis of School Type Among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 School Belonging,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Joo, Young Ju**

Kim, Dong Sim***

Lee, Kwang H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nd invest the difference among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 school belonging,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the high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For this study, 444 students at High school in Korea completed surveys in the fall semester of 2012(222 students: prestigious private school, 222 students: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 school belonging affect school satisfaction. Second, Self-efficacy affect achievement. Third, According to latent means analysis,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students shows significantly lower latent mean values than prestigious private school students on two factors(self-efficacy, school satisfaction). In the case of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highly affected achie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nstructional design methods and management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in prestigious private school and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Key words: Self-efficiency, School belonging, Parental support, School satisfaction, Achievement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First author,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Professor a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uwon Science College